



2026

우체국 문화전

접수번호

기입 금지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응모구분	중·고등
제 목	주소 너머의 안부

표정에서 향기가 난다면 어떨까? 내 이웃은 환한 웃음에서 햇살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뽁뽁한 아파트가 모여 있는 동네이다. 이상하게도 가까이 붙어 사는 아파트에서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래도 나와 할아버지는 시간대가 맞아 자주 마주치곤 했다.

할아버지는 늘 혼자 다니시는 법이 없었다. 항상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의 곁을 지키셨고, 나와 마주칠 때마다 눈을 초승달처럼 접으며 웃어 주셨다. 하교할 때면 두 분은 벤치 쪽에 앉아 계셨고, 햇살이 그쪽에만 훌쩍려져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는 혼자이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마저도 보기 힘들어졌다. 몇 달 뒤, 우편함 앞에서 시선이 멈췄다. 우편물이 가득 꽂힌 채 빠져나와 있었다. 익숙한 숫자, 할아버지의 주소였다. 나는 그제야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엄마도 할아버지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우리가 아는 것은 할아버지의 집 호수뿐이었다. 주소는 숫자로 적혀 있었지만, 그 안에 혼자 남은 시간이 있다는 건 너무 늦게





2026

접수번호

우체국 문화전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응모구분

제 목

알았다. 얼마 뒤, 관리사무소를 통해 우체국 집배원이 할아버지 댁에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물품을 전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도 그 대상자였다고 했다.

그때서야 할머니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고, 할아버지가 혼자 지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분이 손을 잡고 눈을 맞추던 모습을 자주 보았던 터라 마음이 더 아렸다.

매일 마주치던 나는 할아버지의 주소밖에 알지 못했는데, 집배원은 그 주소 너머의 안부까지 살피고 있었다. 늘 햇살 냄새를 나누어 주시던 할아버지에게 나는 아무것도 나누지 못했다.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건 그때 그 벤치에서였다. 숨은 그림을 찾는 것처럼 할머니의 존재 외에는 모두 그대로였다. 나는 할아버지를 알아차리자마자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버렸다. 뽕죽뽕죽한 부끄러움에 괜히 뒷걸음질을 쳤다. 그때 해를 가리고 있던 구름이 자리를 내주었다. 코끝에 느껴지는 풀잎 냄새에 고개를 들자,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어느새 햇빛이 가득 차 있었다.





2026

접수번호

우체국 문화전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응모구분

제 목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초승달 모양으로 눈을 접으며 웃어 주셨다. 나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숙이고, 끝을 흐리며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그 찝막한 한마디가 뭐라고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우체국 집배원이 문 앞까지 찾아가 전해 준 안부 인사를, 나는 그제야 겨우 꺼내고 있었다. 짧은 안부를 전내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던 건, 가까이 살아도 서로의 공간을 쉽게 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우체국의 역할이 더 크게 느껴졌다. 우체국은 편지나 소포만이 아니라, 내가 지나친 안부를 대신 문 앞까지 가져다주는 곳이었다. 그 뒤로 나는 우편함 앞을 지날 때마다 꽃힌 우편물보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다. 우체국이 전낸 안부는 결국 나에게도 늦지 말고 마음을 꺼내라는 작은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날, 내 마음에서는 녹 냄새가 났을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꺼내지 못해 녹슬어 버린 내 용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웃음에서는 여전히 햇살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다음에는 그 햇살을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먼저 안부를 전낼 줄 아는 이웃이 되고 싶다.

